

• 언어 영역 •

정답

1	⑤	2	④	3	③	4	③	5	④
6	③	7	⑤	8	⑤	9	⑤	10	①
11	⑤	12	②	13	②	14	①	15	⑤
16	③	17	⑤	18	④	19	⑤	20	④
21	②	22	⑤	23	⑤	24	②	25	③
26	②	27	⑤	28	②	29	④	30	④
31	①	32	①	33	②	34	③	35	③
36	④	37	④	38	①	39	①	40	③
41	④	42	④	43	②	44	①	45	①
46	③	47	①	48	④	49	③	50	②

해설

[1] 이제 강의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모래시계 알죠? 모래시계는 좁은 구멍을 통해 위쪽 용기의 모래가 아래쪽 용기로 떨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시간을 재는 장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모래시계에서 모래가 떨어지는 속도와 시간의 관계를 알아볼게요.

일반적으로 모래가 흘러내리게 되면 모래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어 모래가 흘러내리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실제로 압력은 모래가 빠져나갈수록 줄어들긴 합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속도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속도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마찰력 때문입니다. 모래 알갱이들은 모래 알갱이들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 때문에 쉽게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아요. 그런데 용기의 벽면에 닿아 있는 모래 알갱이들은 벽면이 미끄러지기 때문에 마찰력이 적어서 아래쪽 용기로 먼저 흘러내려 가죠. 이때문에 시간이 흘러 모래가 줄어들더라도 모래가 떨어지는 속도는 일정합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매우 정확한 모래시계가 있다고 합시다. 그 모래시계에서 모래가 위쪽 용기에서 아래쪽 용기로 떨어지는 속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어떤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1. [출제의도]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모래가 아래쪽 용기로 떨어질수록 모래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어 속도가 줄어들 것 같지만, 이 강의에서는 마찰력 때문에 속도가 줄어들지 않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시간이 흘러도 속도가 변하지 않고 있는 ⑤가 정답이다.

[2] 이번에는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영희 : 아빠, 저축에 대한 글짓기를 하려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아버지 : 그래, 먼저 네 생각을 말해 보렴.  
 영희 : 당연히 저축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평소에 적은 돈을 저축하면 나중에 큰돈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큰일이 생겼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저축은 필요하죠.  
 아버지 : 오, 우리 영희 기특한데! 그런데 저축은 개인에게도 필요하지만 기업 차원에서도 필요하단다. 기업이 빌리는 돈의 대부분은 개인의 저축에서 나오거든. 음..... 그런데 이렇게 필요한 저축도 너무 지나치면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아니?  
 영희 : 예?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저축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니요?  
 아버지 : 그걸 '저축의 역설'이라 하는 거야. 사람들이 무조건 저축만 늘리고 물건을 사지 않는다면 기업이 생산한 물건이 팔리지 않겠지? 그러면 기업은 경영이 어려워지니까 직원을 줄일 거 아니니. 그럼 또 사람들은 돈을 못 버니까 물건을 안 사게 되고, 다시 기업이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돼.  
 영희 : 아, 저축이 좋은 거긴 하지만 지나치면 안 좋군요.  
 아버지 :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저축률이 떨어지고 있단니까 저축을 열심히 하자는 방향으로 글을 쓰면 어떨까?

2. [출제의도] 대화에서 언급된 개념을 빗대어 표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저축의 역설'은 '저축 증가 → 소비 감소 → 기업 사정의 어려움 → 고용 감소 → 소비 감소 → 기업 사정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설명하는 말이다. 그런데 저축은 여러 면에서 좋은 것이라고 아버지는 말했다. 그 저축이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곧 '저축의 역설'이다. 이를 빗대어 나타내는 데 적당한 것은 '좋은 것도 지나치면 해를 입힌다'는 의미의 ④이다.

[3] 이번에는 이야기 한 편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옛날 어느 마을에 김 서방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건넌마을 박 서방이 효자 상을 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효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었던 그는 아침 일찍, 눈 오는 길을 걸어 박 서방을 찾아갔습니다.

박 서방네 앞마당에는 벌써 눈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마당에서는 팔십이 넘는, 박 서방의 아버지가 눈을 끌고 있었습니다. 박 서방은 눈을 끌고 있는 아버지의 손이 시리지 않도록 화로를 들고 따라다닐 뿐이었습니다.

김 서방이 보니, 그것은 불효였습니다. 추운 날씨에 따뜻한 방에 모시지는 못할망정, 늙으신 아버지가 눈을 쓸도록 내버려 두는 박 서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허허, 저런 사람에게 나라에서 효자 상을 내리다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참다못한 김 서방이 박 서방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나라에서 주는 효자 상을 탔는데, 부모가 추운 날씨에 나가서 눈을 쓸면 못 하시게 해야지, 화로를 들고 다니면서 손이나 썩게 하는 게 효도요?"  
 그러자 박 서방이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부모님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면, 부모님의 마음이 언짢으실 게 아니요? 아버님이 원하시니 그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 내가 불을 들고 따라다닌 거요."  
 그 말을 들은 김 서방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 [출제의도]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가 주는 교훈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박 서방의 행동을 통해 김 서방이 참된 효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듣기 본문에서 박 서방이 말한 '아버님이 원하시니'는 이 이야기 전체의 핵심이 된다. 즉, 부모님이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게끔 해드리는 것이 바로 효라는 것이다.

[4~5] 이번에는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학생 : 아침에 체육 선생님께서 각 반 회장들을 부르셨어. 이번 교내 체육 대회 경기에 출전할 선수를 구성하라고 말씀하시더라. 우리 반은 어떻게 할까?  
 남학생 : 출전 종목이 뭐야?

여학생 : 응, 줄다리기, 배구, 이어달리기, 이렇게 세 종목이야. 줄다리기야 반 전체가 참여하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배구나 이어달리기 선수는 어떻게 뽑으면 좋을까?

남학생 : 반 대항 경기니까 무조건 이길 수 있도록 운동을 잘하는 아이들을 선수로 뽑아야지. 지난번 체육 시간에 달리기 기록으로 수행평가 점수를 매겼잖아. 이어달리기는 수행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아이들로 선발하는 것이 좋겠어.

여학생 : 그래, 이어달리기는 기록이 빠른 순서대로 뽑으면 되겠다. 그럼 배구 선수는 어떻게 뽑지?

남학생 : 배구도 마찬가지로 아니니? 상대 편을 이길 수 있도록 배구를 잘하는 아이들로 뽑으면 되잖아?

여학생 : 물론 상대 편을 이기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달리기 기록이 좋은 아이들 중에 배구를 잘하는 애들이 많아. 그럼 선수가 겹치게 되잖아. 다른 반을 이기기 위해 운동 잘하는 아이들만 여러 종목에 걸쳐서 선수로 뽑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될 수 있으면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체육 대회에서 승리하는 것보다는 우리 반 단합이 더 중요하다고 봐.

남학생 : 네 말도 일리는 있어. 그래도 경기에 이기는 것이 좋지 않겠어? 응원하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 봐. 우리 편이 지고 있으면 응원할 맛이 나겠니?

여학생 : 그래. 체육 대회에서 응원은 경기 못지않게 중요하지. 그런데 상대 편에 비해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반 아이들이 열심히 응원을 하면 실력 이상으로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체육 대회가 우리 반 아이들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4. [출제의도] 발화자가 제안할 만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여학생은 체육대회에서 운동을 잘 하는 학생이 여러 종목에 출전하는 것이 문제가 됨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여학생의 견해에 동의하는 사람은 한 종목에 출전한 사람이 다른 종목에 중복으로 출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 적절하다.

5. [출제의도] 발화자의 말하기 방식의 적절성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여학생과 남학생은 모두 상대방의 견해를 일부 인정하면서 이에 대답되는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는 말하기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상대방의 주장 일부를 확대 해석하고 있지 않다. ② 상대방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며 보충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③ 상대방의 주장을 보충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견해 차이를 좁히고 있지도 않다. ⑤ 상대방의 주장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긴 하지만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힐 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6. [출제의도] 연상 내용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옷을 고르는 과정에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을 연상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연상의 기본 방식은 '옷=직업'이다. 삼촌 결혼식에 입고 갈 옷을 고른다는 것은 옷을 입는 목적을 고려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거기에 어울리는 연상은 '직업 선택의 목적을 고려한다.' 정도가 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옷의 정보를 찾아본다는 것은 직업에 적용하면 직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는 것과 같다. ② 디자이너인 누나는 옷에 대해서 많이 알고, 옷을 추천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이런 사람을 직업 분야에 적용한다면 전문 상담사 정도가 될 수 있다. ④ 자신의 체형에 맞

는 옷을 고른다는 것으로는 직업과 자신만의 특성이 그 직업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가 하는 정도를 따진다는 것을 연상할 수 있다. 직업과 관련된 자신의 특성은 적성이라고 볼 수 있다. ⑤ 여러 옷을 입어보는 것은 정식으로 옷을 구입하기 전에 여러 옷을 체험해 보는 것이다. 따라서 직업에 대한 체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연상할 수 있다.

**7. [출제의도] 개요를 적절하게 수정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길거리에 버려지는 애완동물 문제’에 관한 글의 개요인데, 글의 개요를 보면, 마무리에서 ‘애완동물을 잘 기르는 방법’에 대해 말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는 글의 논지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길거리에 버려지는 애완동물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⑤에서는 ‘애완동물 증가에 대한 전망’으로 수정하겠다고 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버려져 길거리를 떠도는 애완동물 문제에 대한 글이므로 ‘많은 애완동물이 길거리에 버려져 떠도는 문제를 해결하자.’로 수정되어야 한다. ④ ‘II-4’를 고려하면 ‘버려진 애완동물을 위한 보호 시설 확충’이라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8. [출제의도] 주어진 자료를 해석하여 글쓰기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에서는 청소년 척추 측만증 환자가 늘고 있고, 그 질병이 대표적인 청소년의 척추 질환임을 알 수 있다. (다)에서는 척추 측만증의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고, 척추 측만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두 자료로는 척추 측만증의 증가 원인이 이 병의 치료 기술이 부족해서인지 알 수 없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척추 측만증이 청소년의 육체 건강과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다)에서 척추 측만증은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였으므로, 정기 검진을 통해 이 병에 걸렸는지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다. ④ (가)에서는 척추 측만증에 걸리는 이유가 나쁜 자세와 허리 근육의 부족에 있다고 하였고, (다)에서는 올바른 생활 습관과 꾸준한 운동이 척추 측만증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9. [출제의도] 주어진 조건에 따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늘어나는 우리들의 자동차, 줄어드는 북극곰의 집’에서 대구법을 찾을 수 있으며, ‘집을 되찾아 달라고 애원하는’에서 대상이 의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동차로 인해 북극곰의 집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 주어 자동차가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내용도 표현되었다.

**[오답풀이]** ①, ② 내용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의인화가 사용되지 않았다. ③ 대구의 표현과 의인화가 사용되지 않았다. ④ 대구의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10. [출제의도] 문제에서 요구하는 글의 성격을 알고 그에 맞게 퇴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확립’은 ‘사물의 기초·내용이 굳게 섬. 또는 굳게 세움’의 의미이다. <보기>에서는 책이 기억과 상상을 넓혀준다고 하였으므로, ㉠은 ‘범위·규범·세력 등을 넓혀 넓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확장’으로 바꿔야 한다.

**[오답풀이]** ② ‘~으로서’는 ‘지위, 신분, 자격’을 나타내는데 쓰이고, ‘~으로써’는 ‘수단, 방법, 도구’ 등을 나타내는데 쓰인다.

**11. [출제의도] 중의적인 문장을 파악하고 이를 바르게 고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문장의 중의성이 왜 생겨나는지를 이해하고 이를 해소

하는 방향으로 문장을 고쳐야 한다. 일단 문장이 어떤 내용으로 해석되고 있는지를 파악한 후에, 중의성을 유발하는 원인을 해소하도록 한다. ⑤의 경우에는 ‘보는 것을’을 첨가하더라도 현재 문장이 지니고 있는 중의성에는 변화가 없다. 이를 중의성이 없는 문장으로 고친다면, ‘남편은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드라마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쓰는 것이 적절하다.

**12. [출제의도] 용례가 바르게 사용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아픈 증세’와 ‘치료 행위’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들 중에, 그 용례가 잘못된 것을 찾는다. ‘쭈시다’라는 단어가 ‘신체의 일부가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아픈 증세’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할 수 있지만, ②에 쓰인 ‘쭈시다’는 ‘다른 사람을 부추기거나 피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기에, 이는 ‘아픈 증세’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걸리다 : 숨을 크게 쉬거나 몸을 움직일 때에, 몸의 어떤 부분이 당기어서 딱딱 부딪치는 것처럼 뜨겁게 아프다. ③ 아리다 : 상처나 살갓 따위가 찌르는 듯이 아프다. ④ 놓다 : 치료를 위하여 주사나 침을 찌르다. ⑤ 뜨다 : 『주로 '땀'과 함께 쓰여』 병을 다스리기 위하여, 약쥬를 비벼 혈에 놓고 불을 붙여 태우다.

**[13 ~ 16] 현대시 제제**

**<출전> (가) 김광균, 「다시 목련」**

- (나) 이용악, 「다리 위에서」
- (다) 이성선, 「고향의 천정(天井)」

**13. [출제의도] 각 시에서 담고 있는 공통된 정서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시이고, (나)는 화자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추억하는 시이며, (다)는 돌아가신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는 시이다. ②는 각각 어머니와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공통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4. [출제의도] 두 시에 나타난 공통된 표현상의 특징이나 시상 전개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는 ‘목련’을 매개로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리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B]는 고향의 ‘국수집’을 찾아가는 ‘다리 위’에서 화자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다. ①에서 ‘목련’과 ‘다리’는 각 시에서의 회상의 매개물이 된다.

**15. [출제의도] 시의 내용과 정서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는 시이다. 화자는 해마다 피는 목련을 보며 돌아가신 지 24년이 된 어머니를 떠올리게 된다. 꽃 피고 지는 자연 현상에 어머니가 오고 가시는 것으로 화자의 정서를 투영시킴으로써, 어머니의 사랑을 여전히 느끼고 있는 화자의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형상화하고 있다. ⑤는 이러한 시의 내용과는 무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오답풀이]** ② 목련이 ‘옛마당’을 찾아와 피고 어머니가 ‘옛집’을 떠나신다는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③ 1연에서 ‘어머님 가신 지 스물네해’라 했으므로 화자가 어른임을 알 수 있다. ④ 화자가 어머니와 목련을 동일시 여기고 있는 상황에서 비가 내려 꽃이 지는 것은 매우 서럽고 슬픈 일이다. 3연의 ‘서러운 비’에는 이러한 화자의 정서가 감정이입을 통해 나타나 있다.

**16. [출제의도] 제시된 글을 통해 시를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다)는 어린 시절 할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자랐던 화자가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할머니를 잊고 지나다가 할머니에 대한 기억을 문득 떠올리며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시간적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으며 과거, 현재의 전환은 ③번의 2연이 아닌 ‘오늘’이라는 시어가 제시된 5연이다.

**[오답풀이]** ① 시에서 역설적 표현이 드러난 곳은 ‘아주 커서도 덜 자란 나’이다. ② 화자는 고향 하늘의 별(은하수)을 보고 메밀꽃을 연상했고, 다시 메밀밭, 할머니를 연상하게 된다. 따라서 이 시에서 회상의 매개체는 ‘별’이다. ‘메밀꽃’은 별(은하수)을 비유한 것이다. ④ 어린 시절 할머니가 ‘가끔’ 자신을 보살피신다고 생각했던 화자는, 오늘 밤하늘의 은하수를 바라보며 지금도 할머니가 ‘날마다 보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⑤ 화자가 깨달은 것은 할머니의 깊은 사랑이다. 이를 형상화한 것이 7연, 특히 ‘날마다~계셨습니다.’이다.

**[17 ~ 19] 인문 제제**

**<출전> 정약용, 「인재를 등용하는 방법에 관하여」**

**17.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당과 싸움에 빠져 있는 당대 현실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글쓴이는 이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당과 싸움을 음식 싸움에 빗대어 제시하고 있다. 1단락에서는 음식을 놓고 싸우는 것을 제시한 다음, 2단락에서는 그에 빗대어 당과 싸움을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18. [출제의도] 관점에 따른 비판을 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를 보면, 공자는 ‘예(禮)’를 중시하고 있다. 예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의 조화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글에 제시된 현실을 바라보면, 가장 큰 문제점은 당과 때문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예의 근본 취지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19. [출제의도] 발화 이유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글쓴이는 ㉠에서 ‘당파를 없애지 않고서는 전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당파를 없애야 전하의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글에서는 특히 당파 때문에 인재가 공평하게 선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따라서 글쓴이가 ㉠과 같이 말한 이유는 공평한 정책을 펴서 인재 선발 방법을 개혁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0 ~ 23] 고전소설 제제**

**<출전> 작자 미상, 「이춘풍전」**

**20. [출제의도] 작품의 주제 의식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이춘풍이다. 이춘풍은 평양에서 추월의 유혹에 넘어가 재물을 탕진하고 추월의 집에서 하인 생활을 한다. 그러다 회계 비장(춘풍의 처)의 도움으로 재물을 되찾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이춘풍은 자기가 장사를 잘해 돈을 많이 벌어서 온 듯이 행동하며, 음식 타박을 하기도 하고 평양에 가서 추월과 살겠다고 말하기도 하는 등의 허세를 부린다. 이로 보아 이춘풍은 가부장적인 권위 의식과 허위의식을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이춘풍은 아내가 회계 비장이란 사실이 드러나며 망신을 당하게 된다. 이로 보아 이춘풍은 풍자의 대상임을 또한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춘풍의 처는 회계 비장이 되어 곤경

에 처해 있는 남편을 구해내고, 남편이 허세를 부릴 때에는 회계 비장으로 변장해 남편의 태도를 돌려놓을 정도로 능력 있고 적극적인 인물이다. ② 양반인 이춘풍이 평양으로 장사를 떠났던 것에서 판단할 수 있다. ③ 회계 비장은 탐관오리가 아니다. ⑤ 이춘풍은 방탕함으로 인해 몰락하였지만 회계 비장(아내)의 도움으로 재물을 되찾아 귀가하였다.

**21. [출제의도] 사건의 전개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비장은 춘풍의 처가 변장한 것이므로, 비장이 춘풍의 과거 행적을 춘풍의 처에게 폭로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사건 I'은 이춘풍이 음식 타박을 하고 평양에서 추월이와 살던 때가 좋았으며 평양으로 다시 가서 추월이와 살겠다고 허세를 부리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결과적으로 '사건 II'에서 춘풍의 처가 이춘풍의 이런 태도에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회계 비장의 복색으로 이춘풍 앞에 나타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사건 I'에서 '사건 II'로 전개될 때에는 춘풍의 처가 비장의 복색을 입음으로 춘풍에게 비장으로 인식되고, '사건 II'에서 '사건 III'으로 전개될 때에는 춘풍의 처가 비장의 복색을 벗음으로 춘풍에게 자신이 그의 아내임을 드러낸다.

**22. [출제의도] 인물이 보인 행동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회계 비장이 되어 평양에서 남편을 구해내고 귀가한 춘풍의 처는 평양에서 돌아올 남편을 기다린다. 그런데 춘풍의 처는 이춘풍이 귀가하자 이춘풍이 돌아올 줄은 몰랐다는 듯이 행동하였다. 따라서 ㉠은 춘풍의 처가 의도적으로 꾸며낸 것이다. 한편 ㉡은 이춘풍이 회계 비장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 다른 아닌 자신의 아내였음을 깨닫고 놀란 감정이 자연스럽게 표출된 것이다.

**23. [출제의도] 인물의 태도를 한자성어와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B]에서 드러나듯이, 평양 추월의 집에서 하인으로 고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에서 이춘풍은 좋은 안주에 술을 먹은 듯이 허세를 부리고 있다. 이러한 태도와 관련 깊은 것이 '실속은 없으면서 큰소리치거나 허세를 부림.'의 뜻을 지닌 '허장성세(虛張聲勢)'이다.

**[오답풀이]** ① 호가호위 :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 ② 정저지와 : 우물 안 개구리. ③ 인과응보 : 전생에 지은 선악에 따라 현재의 행복과 불행이 있고, 현재에서의 선악의 결과에 따라 내세에서 행복과 불행이 있는 일. ④ 감탄고토 :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으로, 자신의 비위에 따라서 사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을 이르는 말.

**[24 ~ 27] 사회 제재**

**<출전> 김성권 외, 「사회학」**

**24. [출제의도] 글쓴이의 집필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은 개인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으로 대비되는 두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좌절-공격 이론'은 일탈의 원인을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서 찾은 개인적 관점에 해당하고, '낙인 이론'은 일탈의 원인을 사회적 낙인에서 찾은 사회적 관점에 해당한다. 글쓴이는 이 두 이론을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에서 소개하고 있다.

**25.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공격적인 행동'은 일탈 행동의 하나이다. '좌절-공격 이론'에서는 일탈을 욕구의 좌절에서 비롯된 반응이라고 보았으므로, 이것 역시 '욕구의 좌절로 인한 반응'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26.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만화에서 보면, '신입 사원 ○○'는 지각으로 인해 같은 직장 사람들에게 일탈자로 낙인찍혔음을 알 수 있다. '낙인 이론'에서는 일탈의 원인을 사회적 낙인에서 찾았기 때문에, 지각의 원인을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서 찾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낙인 이론'에서는 일탈자로 낙인찍히면 이후에도 그 낙인으로 인해 일탈이 지속된다고 하였다. ③ '낙인 이론'에서는 한번 낙인찍히면 그 낙인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렵다고 하였다. ④ '낙인 이론'에서는 일탈이 낙인의 결과라고 보았다. ⑤ '낙인 이론'에서는 일탈자로 낙인찍힌 자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하였다.

**27. [출제의도]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유발(誘發)'은 어떤 것에 이끌려 다른 일이 일어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28 ~ 30] 기술 제재**

**<출전> 손성근, 「전통의 거리 측량 기구, 기리고차」**

**28. [출제의도] 글에 언급된 내용을 파악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기리고차의 종류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29. [출제의도] 유사한 원리가 적용된 사례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을 보면 기리고차의 아래바퀴가 15회 회전을 하는 동안 중간바퀴가 한 번 회전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리고차의 아래바퀴의 회전에 비례하여 중간바퀴가 회전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시계의 초침이 시계에 새겨진 60개의 눈금을 도는 사이, 이에 비례하여 분침이 한 눈금을 움직이는 것을 들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를 버려 원주율을 3.14로 정하는 것에는 비례의 원리가 적용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0. [출제의도] 본문의 내용을 참고 하여, 새로운 자료에 적용하여 해석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본문의 네 번째 단락을 통해 기리고차는 직선의 길이든 곡선의 길이든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곡선의 길에서는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기리고차의 뒷바퀴는 13.75리를 이동했을 때 한 바퀴 돌게 된다. 그리고 'A-B' 구간은 10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 뒷바퀴는 한 바퀴를 채 못 돌았을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기리고차는 이동거리가 10리일 때 북이 여러 번 울린다. 따라서 A로부터 10리의 거리인 B 지점과, B로부터 10리의 거리인 C 지점에서 각각 북이 여러 번 울릴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본문의 설명을 통해 기리고차는 0.5리를 갔을 때 종이 한 번 울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B' 구간과 'B-C' 구간의 거리는 각각 10리로 동일하다. 따라서 'A-B' 구간과 'B-C' 구간의 거리가 동일하므로 각각의 구간에서 종이 한 번 울리는 횟수는 동일할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기리고차가 등장하기 전의 거리 측량 수단이었다면 새끼줄이나 노끈은 물에 젖으면 길이가 달라져 측량의 도구로는 적절하지 않았다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 새끼줄이나 노끈은 날씨에 따라 측정된 거리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이끌어낼 수 있다.

**[31 ~ 35] 갈래 복합 제재**

**<출전> (가) 범정, 「옹달샘에서 달을 건다」**

(나) 윤선도, 「오우가(五友歌)」

(다) 설장수, 「어옹(漁翁)」

**31.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산중에서 자연 친화적 생활을 하며 안분지족과 무욕의 삶의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고, (나)는 자신이 좋아하는 다섯 가지 자연물을 예찬하며 그들의 덕성을 본받으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다)는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④ 이상 세계를 동경하는 심리는 (가)~(다)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다)의 경우 '물과 구름 가득한 마을'을 이상적인 생활공간으로 여기는 태도가 나타나나, 이미 화자는 그러한 공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32. [출제의도] 작품을 심층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계명성'과 '술가리'는 자연 친화적인 삶을 드러내는 소재이지, 화자의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주는 소재는 아니다.

**[오답풀이]** ④ '몇 권의 책과 옷을 담은 광주리'는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못하지만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고 소박한 화자의 일상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33.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 및 소재의 기능을 묻는 문제이다.**

'오우가' 제4수의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 지거늘'은 '눈서리'로 상징되는 시련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술'의 속성과 대비되는 가변적인 속성으로, '술'의 속성을 비유한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제1수에서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의 다섯 제재를 제시하고 있다. ③ '술'과 '대나무'의 지조와 절개라는 덕성을 부각하는 이유가 된다. ④ 생태적 속성을 제시해 '대나무'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⑤ '밤중의 광명', '보고도 말 아니 하니' 같은 '달'을 벗으로 여겨 좋아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34. [출제의도] 화자의 공간에 대한 인식을 고려하여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천 리'는 호수를 뒤덮은 안개를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고요하면서도 청정한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한다. 강호(자연)와 속세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감과 관련이 없다.

**[오답풀이]** ④ 7행의 '어기여차 노랫소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8행의 '어찌 부러워하리오'가 설의적 표현으로 화자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35.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의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에서는 '더우면', '추우면', '눈서리' 등의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가 [B]에서는 '따스한 봄', '맑은 가을 날' 같은 계절적 배경이 나타나 있다. 이를 통해 [A]와 [B]에서 계절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반어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감정 이입은 찾을 수 없다. ④ [A]에만 해당한다.

**[36 ~ 39] 예술 제재**

**<출전> 진중권, 「교수대 위의 까치」**

**36. [출제의도] 각 단락의 중심 화제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라) 단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대상은 '서양 미술사'이다. 관점들의 충돌과 부침이 서양 미술사임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심 화제는 '서양 미술사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37.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때 보일 반응을 알아낼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글쓴이는 마지막 단락에서 어느 하나의 관점만을 고집하지 말라고 하였다. 더욱이 글쓴이는 외부 재현의 관점과 내면 표현의 관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했지, 어느 관점이 더 좋다는 평가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④에서는 마치 글쓴이가 내면 표현의 관점을 선호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따라서 ④는 글쓴이의 생각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오답풀이]** [A]는 대상인 사람을 사실적으로 그린 것이다. 그러므로 [A]는 과학적 원근법, 명암 등을 고려해서 그린 그림이고(①), '세계를 비추는 거울'로 그림을 본 화가의 작품이다(②). 반면에 [B]는 내면 표현을 중시하는 경향의 그림으로서 화가의 주관적인 내면을 자유롭게 드러내는 그림이고(③), 사실적 재현을 중시하는 화가들에게는 그다지 가치 있는 작품으로 평가받지 못한다(⑤).

**38. [출제의도] 정보와 정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①과 관련하여 당시 서양 사회의 변화 양상은 '사진기의 발명 → 그림에 대한 인식 변화 → 화가들의 한계 인식 → 새로운 방법 모색 → 내면 표현의 중시'이다. '내면 표현의 중시'는 곧 '외부 재현의 욕구 감소'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당시 화가들에게 미친 영향은 ①이다.

**[오답풀이]** ② 사진기의 발명 이후에 화가들은 자유로운 표현을 중시했고, 학습과 훈련을 중시하지 않았다. ③ 사진기의 발명으로 화가들은 내면 표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러면서 당시의 화가들은 상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방법을 찾았는데, 이는 곧 관찰력을 덜 중요시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39. [출제의도] 주어진 어휘를 비유적인 다른 말로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화가들이 당시 자신들이 느꼈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돌과구(突破口)'이다. 이 말은 곤란한 문제 따위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뜻하는데, 그 의미는 ㉠과 비슷하다.

**[오답풀이]** ⑤ 해방구 : 혁명 세력이 중앙 권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세력을 확립한 지구

**[40 ~ 43] 현대소설 제재**

<출전> 하근찬, 「수난시대」

**40.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수난시대의 제시된 장면은 전반부에서는 주로 만도와 진수의 대화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외나무다리에서 진수의 생각, 다리를 건너는 장면에서 부자의 생각 등 인물의 심리가 제시되어 있다.

**[오답풀이]** ② 3인칭 시점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41. [출제의도] 다른 장르로 전환하여 표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진수는 아버지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느끼고 있는데, 이는 외나무다리에서 진수가 중얼거리는 내용 등을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다.

**42. [출제의도] <보기>의 내용을 작품 속 인물의 대화에 적용하였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서 진수는 다리가 없기 때문에 이동이 불편하다는 자신의 불만 사항을 말하고 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함을 보이고 있을 뿐,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우째 살까 싶습니더'라는 말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I 단계에 해당하는 모습이다. ② 만도는 '목숨만

붙어 있으면 산다'는 말로 I 단계 상태인 진수에게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격려를 하고 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의도는 진수를 다음 단계로 이동시키기 위함이다. ③ 팔 하나를 잃은 만도는 '팔뚝 하나 없어도 잘만 안 사나.'라는 말을 통해서 현재의 상황에 적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도록 생활에 적응하여 심리적 상처를 극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⑤ 집에서 하는 일은 팔이 온전한 진수가 하고, 밖으로 나가야 하는 일은 다리가 온전한 만도가 한다는 것은 진수가 심리적 극복을 하였을 경우 갖게 될 모습이다. 이러한 현실적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만도는 자신의 미래를 의심하고 있는 진수에게 정서적 지지를 보내주어 다음 단계로 이동하도록 하고 있다.

**43. [출제의도] 부사어의 의미를 통하여 작품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그시'는 살짝 힘을 줌을 의미하는 부사어이다. 만도는 아들을 향하여 미소를 보내고 있는데 이 장면은 아들의 행동에 대하여 아버지로서 긍정의 미소를 보내주는 장면이다. 따라서 답답함이나 분함을 의미하는 울분이라는 정서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찌우똥찌우똥'은 약간 기울어져서 걷는 진수의 모습이다. 다리 하나를 잃어서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는 진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③ '버쩍'은 진수에게 거침없이 자신의 팔을 내미는 만도를 표현하고 있다. 만도는 이런 행동을 보임으로써 난처해하는 진수가 자신에게 업히도록 촉구하고 있다. ④ '꼭'은 만도가 진수의 다리를 힘껏 야무지게 쥐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다리를 잃은 아들을 떨어뜨리지 않으려는 아버지의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⑤ '찍'은 진수가 아버지에게 업혀야 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황송함을 표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는 결국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이라고 볼 수 있다.

**[44 ~ 47] 과학 제재**

<출전> 자연탐사학교, 「번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44.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의 핵심 내용은 번개가 발생하는 원리로, 그 원리를 방전이라는 전기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1단락에서는 번개가 방전 때문에 일어나고 있음을 밝히고, 2단락에서는 번개의 발생 원리인 방전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설명하고 있다. 3단락에서는 구름 속에서 번개가 발생하는 원리를, 또 4단락에서는 구름과 지표 사이에서 번개가 발생하는 원리를 방전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45. [출제의도] 글의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5단락에 언급되어 있듯이 구름과 지표 사이에서 발생하는 번개를 벼락이라고 하는데, 벼락은 전체 벼락 중 10%에 불과하다. 따라서 ㉠과 ㉡ 사이보다 ㉢와 ㉣ 사이에서 번개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② 3단락에서 ㉠에는 양전하로 대전된 입자가, ㉡에는 음전하로 대전된 입자가 충분히 쌓여야 번개가 발생한다고 했다. ③ 4단락에서 ㉢의 밑에 있는 음전하를 띤 공기 기둥이 지표를 양전하로 유도한다고 했다. ④ 4단락에서 ㉣에 음전하가 있어야 음전하의 공기 기둥이 생긴다고 했다. ⑤ 4단락에서 구름과 지표 사이의 번개는 지표로 내려오던 공기 기둥에 있는 음전하가 다시 구름으로 돌아갈 때 발생한다고 했다.

**46.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도선이 없어도 전기가 흐르는 것을 방전이라고 하는데, 방전은 양전하와 음전하가 불균형을 이루었을 때

발생한다. 외부의 힘에 의해 대전된 물질은 다시 중성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는데 음전하로 대전된 물체와 양전하로 대전된 물체 사이에 강하게 끄는 힘이 발생하면 전하가 이동한다. 바로 이 순간에 전기가 흐르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전기가 도선보다 기체에서 더 잘 흐른다는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중성의 물질은 안정된 상태이므로 저절로 대전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④ 양전하와 음전하는 서로 끄는 힘이 있다. ⑤ 대부분의 기체는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중성 상태이다.

**47. [출제의도] 단어들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대기 중에 방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빛을 모두 '번개'라고 한다. 그런데 그 중에서 '벼락'은 구름과 지표 사이에서 발생하는 번개만을 말한다. 따라서 '벼락'은 '번개'의 하위어이다. ①에서 '사과'는 '과일'의 한 종류이므로, 과일의 하위어이다.

**[오답풀이]** ④ '겨레'와 '민족'은 유의 관계의 단어이다. ⑤ '삶'과 '죽음'은 반의 관계의 단어이다.

**[48 ~ 50] 언어 제재**

<출전> 이운영, 「국어사전 표제어 이해하기」

「사전의 문법 정보」

**48. [출제의도] 지문을 읽고 글에 실린 정보를 개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은 국어사전이 뜻풀이만 나열해 놓은 책이 아니라 표제어의 표기나 문법 정보 등을 통해 단어가 지니고 있는 더 많은 정보를 담아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정보들이 글에 실려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면 ④와 같은 질문을 당연히 해결할 수 있다.

**49. [출제의도] 지문에서 얻은 정보를 실제 상황에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표제어의 제시 형태와 띄어쓰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 단어에 제공되는 문법 정보의 의미와 기능 등이다. 이렇게 본문에서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면, ㉠은 단어의 뜻풀이만 담겨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문법 정보가 드러나 있다고 이해한 것은 적절한 것이 아니다.

**50.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과 ㉡은 사전의 문법 정보에 해당하는 말로, 단순한 뜻풀이만으로는 알 수 없는 정보들을 제시해 준다. 하지만 이런 문법 정보가 각 단어에 모두 달려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 ( ) )'는 표제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드러내 준다. ③ '더붙다'는 반드시 '더붙어'의 꼴로만 쓰인다는 정보가 ㉠에 제시되고 있다. ④ ㉢ '못살게'의 형태로 쓰일 때에는 주로 '굴다'와 결합한다는 정보를 알 수 있다. ⑤ 주로 '못살게'의 꼴로 쓰인다고 했는데, 이는 '못살게' 이외의 꼴로 쓰일 수도 있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